

---

# 미 관세정책에 따른 전북기업 영향 및 대응방안

---

2025. 04.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 || 목 차 ||

I. 조사 개요 .....	1
1. 조사목적 .....	1
2. 조사기간 .....	1
3. 조사대상 .....	1
4. 조사방법 .....	1
5. 집계방법 .....	1
6. 조사내용 .....	1
II. 對美 무역동향 및 조사배경 .....	2
1. 국내 對미국 무역동향 .....	2
2. 조사배경 .....	3
III. 트럼프 관세 정책 영향 및 대책 .....	4
1. 트럼프 관세 폭풍으로 인한 영향권 .....	4
2. 트럼프 관세 영향 수출 유형 .....	5
3. 향후 기업에 영향을 미칠 트럼프 관세 정책 .....	6
4.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른 우려사항 .....	7
5.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비한 대응 수준 .....	8

# I

## 조사 개요

---

### 1. 조사목적

- 트럼프 2.0 시대, 전방위적인 관세 폭풍으로 인해 수출입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전북지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 및 관계기관의 기업 지원정책 등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하기 위함.

### 2. 조사기간

- 2025년 2월 21일 ~ 3월 7일

### 3. 조사대상

- 전북지역 4개상의(전주, 익산, 군산, 전북서남)관할 제조업체 중 무작위 표본추출에 의거 121개 업체로부터 회수

### 4. 조사방법

- 조사원이 조사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우편 및 팩스 조사함.

### 5. 집계방법

- 회수된 조사표를 업종별(전북특별자치도 제조업체의 주요 업종인 8개 업종)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집계·처리하였음.

### 6. 조사내용

- 트럼프 관세 폭풍으로 인한 영향권
- 트럼프 관세 영향 수출 유형
- 향후 기업에 영향을 미칠 트럼프 관세 정책
-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른 우려사항
-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비한 대응 수준

## 1. 국내 對미국 무역동향

## □ 국내 對미국 무역수지 7년 연속 흑자 기록

○ 지난해 한국과 미국 간 거래에서 무역수지가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수출 품목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556억 2,907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2023년(444억 4,243만 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됨.

- 2024년 對미국 수출 : 1,277억 6,137만달러 (전년대비 10.4% ↑)

- 2024년 對미국 수입 : 721억 3,231만달러 (전년대비 1.2% ↑)

## □ 전북 對미국 수출현황

○ 전북의 對미국 수출은 202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무역수지 흑자 폭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2023년에는 수출액이 16억 309만달러, 무역수지 흑자가 11억 4,438만 달러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2024년에는 수출과 무역수지 모두 크게 감소했고 2025년 1-2월 누적 수출 비중은 19.0%, 무역수지 흑자 비중은 40.6%까지 하락함.

○ 이는 미국 수출 의존도 감소와 함께 관세·환율 등 외부 변수에 따라 수출 경쟁력 약화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미국 수입 비중은 점차 늘고 있지만, 무역수지 흑자 비중도 급감하고 있어 전북의 對미국 교역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며, 수출 회복 및 시장 다변화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 전북 對미국 수출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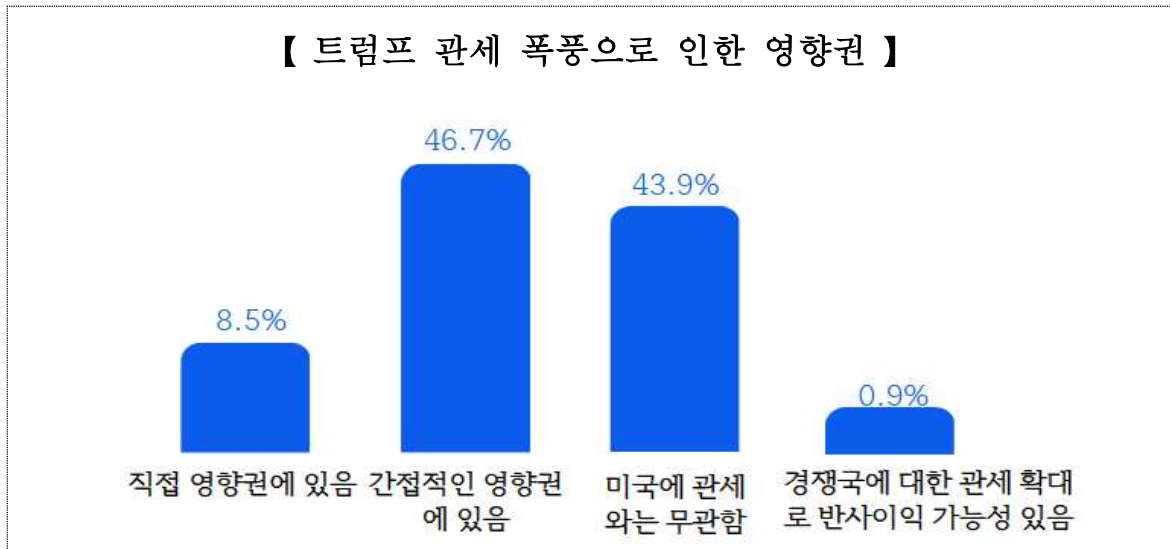
연도	수출액	비중	수입액	비중	무역수지	비중
2025년 1-2월	1억 9,136만달러	19.0%	1억 1,727만달러	14.3%	7,409만달러	40.6%
2024년	11억 9,823만달러	18.8%	7억 1,057만달러	13.0%	4억 8,766만달러	53.7%
2023년	16억 309만달러	22.7%	4억 5,871만달러	8.3%	11억 4,438만달러	72.9%

## 2. 조사배경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강경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주요 조치로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자동차와 부품 등 주요 산업에도 추가 관세를 예고하는 한편, 무역 협정을 재협상하는 등 글로벌 무역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은 중국뿐만 아니라 EU, 일본, 한국 등 우방국에도 적용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무역 마찰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특히 한국은 전체 수출의 18.7%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이러한 조치는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매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여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임.
- 향후 트럼프 관세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전북 지역 기업들도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와 매출 감소, 고율 관세로 인한 수익성 악화, 미국 시장 내 가격 경쟁력 하락,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한 부품·원자재 조달망 조정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 지역 77.6%에 달하는 기업들이 아직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향을 모니터링하거나 별다른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한 채 관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는 전북 산업계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관세 정책에 따른 대외적 변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다변화, 원가 절감, 시장 다변화 등의 노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당국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됨.

### 1. 트럼프 관세 폭풍으로 인한 영향

-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지역 제조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5.2%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중 46.7%는 ‘간접적인 영향권에 있음’, 8.5%는 ‘직접 영향권에 있음’이라고 응답함. 반면, ‘미국의 관세와는 무관함’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43.9%였으며, ‘경쟁국에 관세 확대로 반사이익 가능성 있음’은 0.9%로 극히 적은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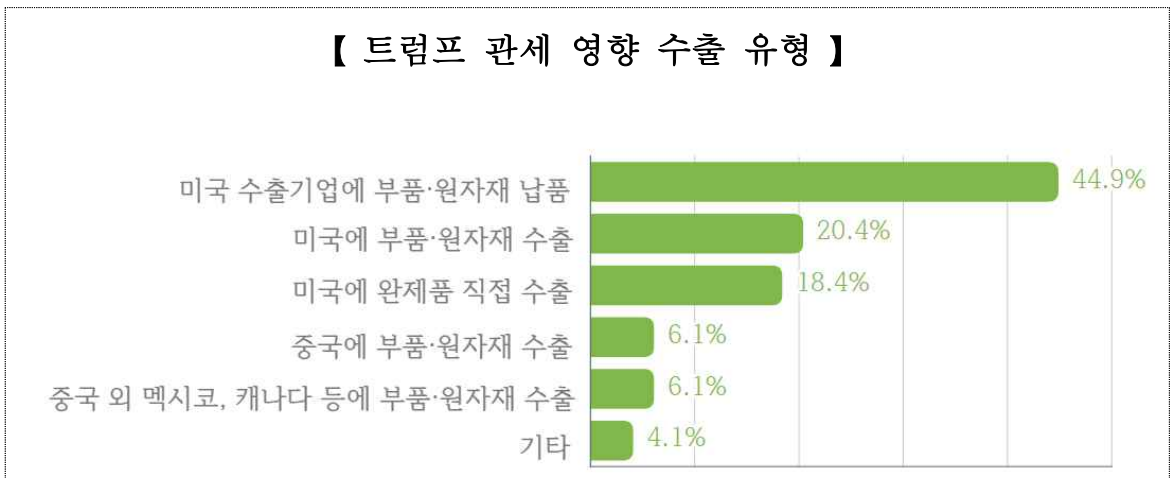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북지역 제조업체 대부분의 기업이 트럼프 관세의 간접적 영향권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됨. 특히 화학(59.1%), 자동차부품(57.2%), 섬유 의복(57.1%), 금속기계(50.0%) 업종은 절반 이상의 기업이 간접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원자재 가격 변동이나 공급망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반면, 전기전자(83.3%)와 비금속(63.6%) 업종은 미국의 관세와는 무관하다고 응답하여 현재까지는 상대적으로 미국 관세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는 전반적으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트럼프 관세 폭풍으로 인한 영향권 】

업종	직접 영향권에 있음	간접적인 영향권에 있음	미국의 관세와는 무관함	경쟁국에 대한 관세 확대로 반사이익 가능성 있음
바이오농식품	8.0%	40.0%	52.0%	-
섬유의복	14.3%	57.1%	28.6%	-
화학	4.5%	59.1%	36.4%	-
비금속	-	36.4%	63.6%	-
금속기계	18.8%	50.0%	25.0%	6.2%
전기전자	16.7%	-	83.3%	-
자동차부품	7.1%	57.2%	35.7%	-
기타	-	50.0%	5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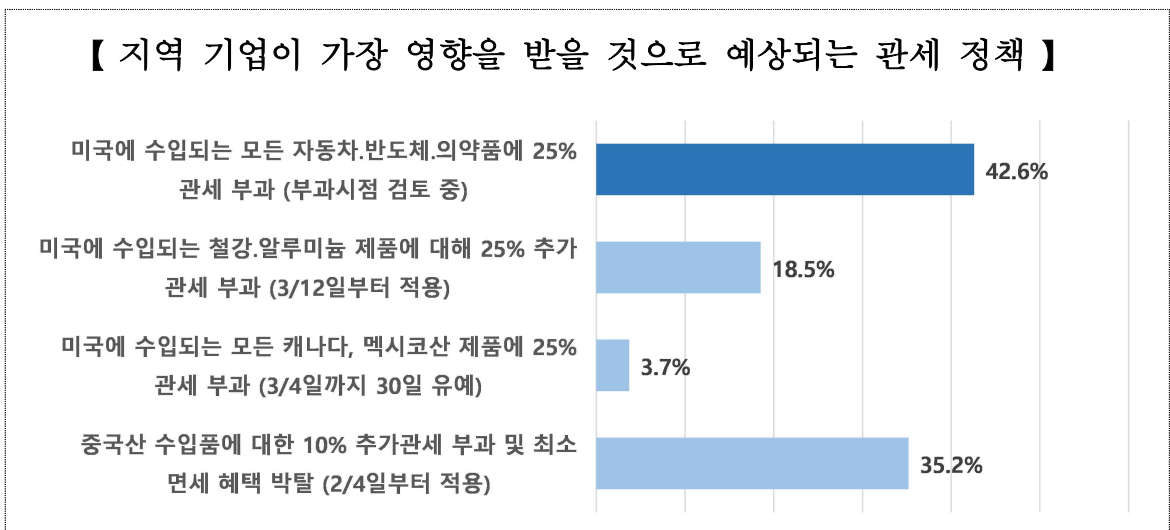
2. 트럼프 관세 영향 수출 유형

- 트럼프 관세 영향권에 있는 기업들의 수출 유형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기업이 미국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조사됨. 특히 ‘미국 수출기업에 부품·원자재 납품’(44.9%)의 응답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미국에 부품·원자재 수출’(20.4%), ‘미국에 완제품 직접 수출’(18.4%), ‘중국에 부품·원자재 수출’(6.1%), ‘중국 외 멕시코, 캐나다 등에 부품·원자재 수출’(6.1%), ‘기타’(4.1%)의 순으로 나타남.
-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 지역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됨. 이는 단순한 미국 직접 수출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미국 시장과 연결된 기업들 역시 상당한 파급 효과를 겪을 것으로 분석됨.



### 3. 지역 기업이 가장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세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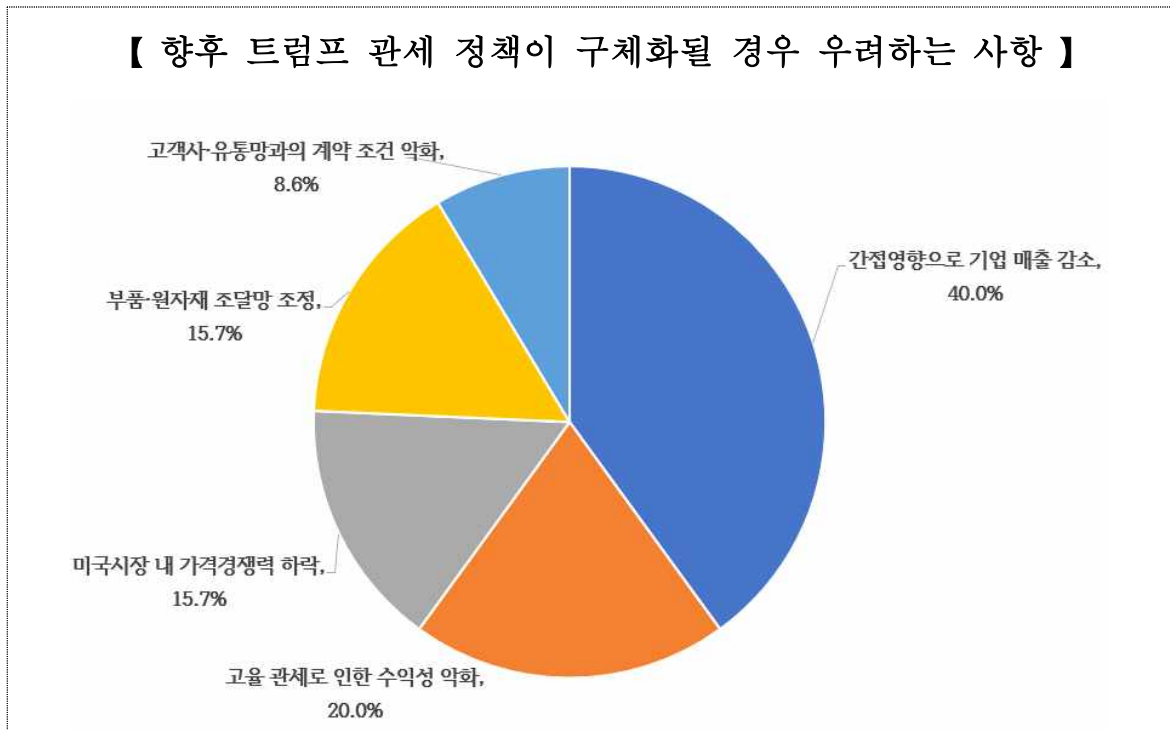
- 현재까지 발표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 향후 국내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조치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반도체·의약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부과시점 검토 중)’로 42.6%의 가장 높은 응답율을 기록함. 다음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 및 최소 면세 혜택 박탈(2월 4일부터 적용)’이 35.2%,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추가 관세 부과(3월 12일부터 적용)’가 18.5%,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3월 4일까지 30일 유예)’가 3.7% 순으로 나타남.
-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는 지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도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격 경쟁력 약화와 수출 감소로 인해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자동차 부품과 철강 제품의 경우 미국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관세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시장 경쟁력 약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수적임. 이에 따라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 원가절감, 시장 다변화 개척 등을 통해 무역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 4. 향후 트럼프 관세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우려하는 사항

- 향후 우리나라에 대한 트럼프 관세 정책이 보다 구체화될 경우 기업들이 우려하는 사항으로는 ‘간접영향으로 기업 매출 감소(40.0%)’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다음으로 ‘고율 관세로 인한 수익성 악화(20.0%)’, ‘미국시장 내 가격경쟁력 하락(15.7%)’, ‘부품·원자재 조달망 조정(15.7%)’, ‘고객사·유통망과의 계약 조건 악화(8.6%)’의 순으로 응답함. 다만 ‘생산기지 이전 등 추가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응답은 없었음.
- 이는 관세 부과가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수요 감소와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이어지면서 기업들이 매출 감소, 수익성 악화, 가격 경쟁력 저하, 원자재 조달 문제, 고객사의 계약 조건 변경 요구 등 다양한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함.



- 대부분의 업종에서 간접 영향으로 인한 기업 매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일부 업종은 가격 경쟁력 하락과 부품·원자재 수급 문제를 중요한 리스크로 지적하였음.

【 업종별 트럼프 관세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우려하는 사항 】

업종	고율 관세로 인한 수익성 악화	미국시장 내 가격경쟁력 하락	간접 영향으로 기업 매출 감소	생산기지 이전 등 추가비용 부담	부품·원자재 조달망 조정	고객사·유통망과의 계약 조건 악화
바이오농식품	25.0%	18.8%	12.4%	-	18.8%	25.0%
섬유의복	16.7%	33.3%	33.3%	-	16.7%	-
화학	6.7%	20.0%	66.6%	-	6.7%	-
비금속	20.0%	-	60.0%	-	20.0%	-
금속기계	26.7%	13.3%	33.4%	-	13.3%	13.3%
전기전자	-	-	100.0%	-	-	-
자동차부품	33.3%	11.2%	33.3%	-	22.2%	-
기타	-	-	66.7%	-	33.3%	-

5.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비한 기업의 대응 수준

- 향후 보다 구체화될 우리나라에 대한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비한 기업의 대응 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77.6%의 기업들이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이 중 51.7%의 기업이 ‘아직은 동향 모니터링 중’이라고 응답했으며, 25.9%의 기업은 ‘아직 대응계획 없음’이라고 응답함. 반면 22.4%의 기업만이 자체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중 20.7%는 ‘원가절감 등 자체 대응책 모색 중 (20.7%)’, 1.7%는 ‘현지생산, 시장다각화 등 근본적인 관세회피 대응책 모색 중’으로 응답하였음.
-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위주의 전북 산업계는 관세 정책 변화와 같은 대외적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됨.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자원과 리스크 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높은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임. 이로 인해 관세 정책 변화와 같은 대외적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관망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다변화, 원가 절감, 시장 다변화 등의 노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당국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됨.

**【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비한 기업의 대응 수준 】**



□ 대부분의 업종이 외부 정책 변화에 대해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섬유·의복과 기타 업종은 대응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기전자와 화학 업종은 원가절감 등 자체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비한 대응 수준 】 (복수응답)**

업종	아직은 동향 모니터링 중	원가절감 등 자체 대응책 모색 중	현지생산, 시장다각화 등 근본적인 관세회피 대응책 모색 중	아직 대응계획 없음
바이오농식품	54.5%	18.2%	-	27.3%
섬유·의복	75.0%	-	-	25.0%
화학	35.7%	42.9%	-	21.4%
비금속	20.0%	20.0%	-	60.0%
금속기계	69.2%	7.7%	7.7%	15.4%
전기전자	-	100.0%	-	-
자동차부품	62.5%	12.5%	-	25.0%
기타	50.0%	-	-	50.0%